

KIA 마운드 정상화 시동

‘조기 복귀’ 임준혁 내일 한화전 출격...김윤동·임기준 2군서 몸 풀기

KIA 임준혁이 마운드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KIA 타이거즈의 5월은 임시선발 체제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4월23일 임준혁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뒤, 4월30일에는 윤석민이 어깨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두 명의 선발이 이탈한 가운데 불펜에도 부상이 겹쳤다. 필승조로 목격한 활약을 해줬던 김윤동이 옆구리 근육 파열로 자취를 감췄다. 마운드 줄부상 속에 급히 1군으로 호출했던 우완 한승혁도 왼쪽 엄지 골절로 등록 3일 만에 다시 재활군 신세가 되는 등 개막 한 달 만에 마운드 구상이 틀어졌다.

한기주-임기준-정용운-전상현-이준영을 임시 선발로 출격시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험과 이닝 부족’이라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허리 통증으로 한 차례 재활군에 다녀왔던 좌완 심동섭이 다시 또 발목 부상으로 빠지면서 마운드 고민이 더해졌다.

결국 임준혁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4월 22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종아리에 최준석의 타구를 맞으면서 쓰러졌던 임준혁은 지난 5월28일 퓨처스리그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고양 다이노스를 상대로 6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피칭을 선보였던 그는 2일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 경기에서도 6이닝 6피안타 7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하며 ‘이상무’를 외쳤다. 7일 퓨처스 경기에서 다시 한번 컨디션 점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심동섭의 부상 등 마운드 상황이 좋지 않자 조금 일찍 1군으로 걸음을 했다. 지난 주말 1군 선수단에 합류한 임준혁은 9일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1군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임준혁의 최근 컨디션과 경험·경기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선발진의 무게가 달라진 듯하다.

임준혁은 “시즌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우천취소로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초반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활군에서 탈출해 복귀에 시동을 건 신진 자원들도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선발 후보로도 언급됐던 김윤동이 7일 2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몸을 풀었다.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기도 했던 김윤동은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 손톱 부상이 있었던 좌완 임기준도 김윤동과 함께 2군 마운드에 다시 섰다. 오른쪽 팔



임준혁

꿈지에 이어 왼쪽 엄지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한승혁도 부상 탈출을 알렸다. 지난 주 공을 다시 잡은 한승혁은 7일에도 60개의 공을 던지며 2군 진입을 위한 정신호를 했다. 임준혁의 복귀를 시작으로 마운드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초... 최연소... 박인비의 도전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엔 女골프 첫 단일 메이저 4연패...1R 치르면 명예의 전당 입회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세계 여자골프 최초로 단일 메이저대회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사할리 골프클럽(파73·6668야드)에서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 출격한다.

이 대회는 오랫동안 LPGA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미국 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주관하면서 위민스 PGA 챔피언십으로 바뀌었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 우승하는 금자탑을 이뤘다. 여자 메이저 단일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선수는 페티 버그(타이틀리스트 챔피언십·1937~1939년), 안니카 소렌스탐(위민스 PGA 챔피언십·2003~2005년) 뿐이다.

박인비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려면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4연패를 달성한다. 박인비는 또 이 대회에서 1라운드를 치르면 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조건을 충족시킨다. LPGA 사무국은 박인비를 위해 입회식을 준비했다.

박인비는 최근 손가락 부상 때문에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즌 초 허리 부상으로 한 달 동안 휴식했던 박인비는 최근 손가락 부상 때문에 킹스밀 챔피언십, 볼빅 챔피언십에서 1라운드를 친 뒤 기권했다.

지난주 열린 쉐라이트 클래식에는 출전하지 않은 박인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화려한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박인비는 한국시간 10일 오전 5시 30분 폴라 크리머(미국), 에리아 쭈타누간(태국)과 경기를 시작한다. 한국의 상위 랭커들도 쉐라이트 클래식에서 출전하지 않고 메이저 대회를 준비해 왔다.

특히 올 시즌 2승을 올린 장하나(24·비씨카드)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 때문에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주 대회에 복귀전을 치른다.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트진로), 양희영(27·PNS) 등도 출격,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한국여자골프단의 우승 가뭄 해소에 나선다. 장하나와 전인지는 10일 오전 5시 30분 멜리사 리드(잉글랜드)와 함께 10번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한국군단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는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와 쭈타누간이다. 리디아 고는 시즌 초반 일찌감치 2승을



박인비

거둔 뒤 최근에는 다소 숨을 골랐다. 하지만 정확한 아이언샷과 퍼트 실력을 앞세운 리디아 고가 우승 후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다. 리디아 고는 스테이시 루이스, 렉시 토폴스(이상 미국)과 10일 오전 0시 30분 경기를 시작한다. 3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탄 쭈타누간도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빅리그 복귀 임박?

트리플A 재활경기서 3안타 1타점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이너리그 재활경기에서 식지 않은 타격감을 뽐냈다.

추신수는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락의 델 다이아몬드에서 벌어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인 오를라호마시티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라운드락 익스프레스의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3안타 1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지난 시즌까지 팀 동료였다가 최근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상대 선발 니 테페시를 맞아 1회말 1사에서 중전 안타를 쳐냈다.

3회말 1사에서 또다시 중전 안타로 출루한 추신수는 로빈슨 차리노스의 타석 때 2루 도루를 시도했으나 포수 송구에 태그 아웃됐다.

5회말 1사 만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빨랫줄 같은 타구로 3루 주자의 득점을 돕고 1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곧바로 대주자와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4월 초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DL에 올라 36경기에 결장한 추신수는 지난달 21일 복귀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또 다쳤다. 시즌 두 번째 DL에 오른 추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충분히 재활경기를 치른 뒤 이달 중순께 빅리그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원 휴식을 취했다.

시애틀 매리너스의 이대호(34)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벤치를 지켰고, 팀은 1-3으로 패했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역시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볼티모어는 4-1로 승리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뉴욕 메츠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와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팀 휴식일을 맞아 모처럼 한가로운 하루를 보냈다.

/연합뉴스

박성원
“2주 연속 우승”
박성현
“그렇게 안될걸”

제주서 KLPGA 또 격돌

이름이 비슷한 동갑내기 박성현(23·넵스)과 박성원(23·금성첨대)이 제주에서 2주 연속 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두며 최강자의 자리를 굳힌 박성현은 10일부터 사흘간 제주 서귀포시 엘리시안 제주골프장(파72·6478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지난주 롯데캐탈타 오픈에 이은 2주 연속 제주 대회 출전이다.

박성현은 지난주 대회에서 드라이버 샷 난조에 발목이 잡혀 공동 20위에 그

쳤다.

이 대회 우승자는 예선 거쳐 출전한 박성원이었다.

골프팬들에게조차 이름이 생소했던 박성원은 생애 처음 챔피언십에서 치른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전혀 흔들림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5타차 완승을 거뒀다. 박성원은 꿈을 이룬 제주에서 내친 김에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2주 연속 출전하는 제주 대회에서 최강자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버리고 있다. 박성현은 지난주 캐타타

/연합뉴스



강성훈 US오픈 간다 지역예선 1,2R 공동9위

강성훈(29)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골프 대회 US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강성훈은 7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저먼타운 컨트리클럽(파71)에서 끝난 US오픈 지역예선에서 1.2라운드 합계 6언더파 136타를 쳐 공동 9위에 올랐다. 강성훈은 136타로 동타를 이룬 다른 5명의 선수와 플레이오프를 치러 10명에게 주는 출전권을 따냈다.

김민휘(24)도 플레이오프에 나갔지만 어렵게 탈락했다.

올해 US오픈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몬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